

# 프랑스출판에서의 만화출판의 위상

## 연간 매출액 3억5천만프랑의 시장규모... 발행부수는 감소추세

에릭 비데

프랑스어로 제작된 최초의 만화는 1908년에 등장한 포르통版「구둣발 삼총사」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표현수법이 프랑스 예술계에서 일정한 정당성을 획득한 것은 1960년대말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 최초의 인정은 1962년, 圖形표현문예연구센터(CELEG)가 창립되어 만화를 주제로 한 리뷰를 발간하고, 1965년에는 국제만화협의회를 조직하면서부터이다. 뒤이어 1967년에는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만화와 서술적 형상'이라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그리고 1971년에는 소르본느 대학에 만화사와 그 미학을 다루는 강좌도 개설된다.

이렇게 예술계에서 근 20년에 걸쳐 인정받기에 이르면서, 만화는 프랑스에서 80년대에는 경제, 사회적으로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교육적으로도 공인받게 된다(이를테면 1990년 과학과 산업의 도시 라 빌레트에서는 '만화속의 과학'이라는 전시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문화성의 최근 앙케이트는(1987-88) 만화독서가 매우 널리 퍼진 관행임을 보여주며(프랑스 국민의 50% 가량이 적어도 한 권씩은 만화책을 소유하고 있다), 또 그 소비자(즉, 독자)는 다른 많은 문화 상품과는 반대로 사회적 계층과 거의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만화가 경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영역임을 가장 잘 입증해주는 사실은 다수의 기관을 창립하기에 이르게 된 정치적 인정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지방權府의 지지에 따라 만화를 위한 수많은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보다 많은 대중을 끌어들이고 그 규모 또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가장 중요한 두 도시, 앙굴렘과 그르노블에서는, 각각의 축제 때마다 10만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각각 약 일천만 프랑의 예산이 소요된다).

1990년에는 국립만화 및 이미지 센터(CN-BDI)가 출범한다. 이곳에서 대중과 전문인과 연구가들은 한편으로는 數이미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앵포그라피와 인간 및 기술자원센터'를 찾아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매체박물관, 즉 케탈로그를 펴내고 전시회를 조직하거나 대행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만화에 관계된 일체의 자료와 만화책, 전문지 등을 수집해놓은 박물관을 찾아볼 수 있다(3백점에 달하는 만화의 원작그림과 3십 만점에 이르는 만화책이 소장되어 있다).

만화는 향후 경매장에서도 주요 품목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무시못할 낙찰가와 매우 고가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한 예로, 최근 「탱탱」의 원작 그림 한점이 3백만 프랑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보다 많은 재화의 창출에 이용되는 활동이 경제적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경제적 전략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전국출판조합과 국립 만화 및 이미지 센터에서는, 앞으로 매년 보다 전문적이며 정확히 규정된 연구를 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그런 활동은 여전히 불충분한 형편이다.

### 프랑스 만화출판의 네가지 형태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만화의 중요성은, 다양하고 수많은 형태의 흥행물로서 드러난다. 그것은 종이위에(포스터, 벽보...), 오브제로서(가사용품, 장난감...), 혹은 천위에(의류...) 헤아릴 수 없으리만치 다량으로 복제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화나 만화영화로서 재생되기도 한다.

반면에,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고 또 더 정확히 만화출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게 가려낼 수 있다. 즉 만화라는 호칭속에는 흔히 네가지 유형의 산물이 포함된다. 단행본 만화, 만화가 곁들여져 있거나 만화의 수법을 구사하고 있는 '擬似만화', 포켓판 만화, 그리고 만화잡지가 그것들이다.

첫째, 단행본 만화는 이를테면 만화의 여왕이다. 대부분의 통계상의 관찰은 이것에 기초하고 있다(포켓판과 만화잡지는 별도의 회계로 다루어지며, 의사만화는 상당히 비밀에 붙여져 있으며, 출판조합에 의해 다른 출판물들의 항목속에서 회계처리되고 있다). 이 단행본 분야는 몇가지 그룹으로 다시 분류될 수도 있다. 번역판과 비번역판, 원색판과 단색판, 신진작가판과 기성작가판 등으로... 그러나 이런 분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준에 의한 분류는 특별히 의미심장한 것으로 드러난다. 즉 상품이 호소하는 대중에 따르는 구별(성인용/ 미성년자용, 한편 미성년자용은 사실상 모든 세대가 접근할 수 있기는 하다), 또는 기존의 것인지 혹은 앞서 발행된 적이 없던 것인지(초판/ 재판).

둘째, 의사만화의 항목에는, 만화작가가 삽화를 맡은 소설류나, 글모음에서부터 만화에 관한 에세이 혹은 유머러스한 데생모음들에



현대프랑스인의 선조 골리족의 신화를 그린 '아스테릭스'. 프랑스인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만화다.

이르기까지 주변적인 여러 유형의 책들의 그룹이 들어있다. 단행본류와 달리, 이 책자들은 반드시 만화 발행자들의 손으로 발간되는 것은 아니다(예로서 1990년 갈리마르社에서는 피에르 아잠의 「르 에르쥬」를 펴냈다. 년간 발행부수에 있어서는 단행본의 경우보다 매우 열세이다(단행본은 한해에 6백 내지 7백종인데 비해 이 항목은 6십에서 일백부 이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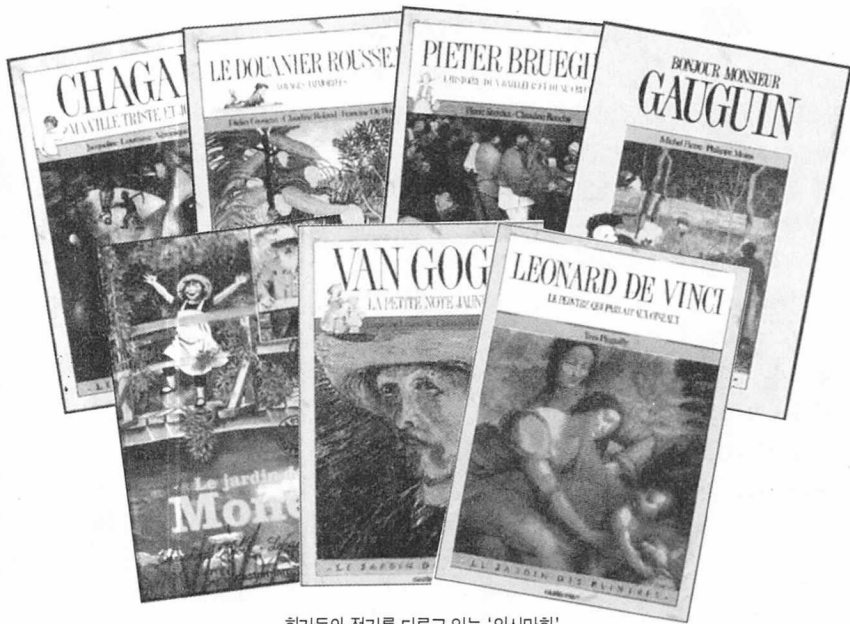
셋째는 포켓형 만화로, 1987년 쥘 뒤(나는 읽었다라는 뜻을 차용한 이름-역주) 출판사에서 기존의 단행본을 포켓판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것은 포켓북 시장의 어려움 때문임은 물론이다(프레스 포켓사와 미디어1000사에서 는 즉시 이 추세에 따라 포켓형 만화를 내놓았

다). 포켓북에 대한 일반적 연구에서 포켓판 만화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못한 상태이다. 발행부수만이 사실상 헤아려질 뿐이고(1989년에는 90종, 1990년에는 72종이 발행되었다). 그것도 주로 유머러스한 것이나 性愛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넷째, 단행본 만화가 출간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실험실이자 시험대로 간주되었던 만화잡지는(1988년까지도 단행본·만화의 절반은 우선 잡지에 게재되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었다) 더이상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가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최근 수년간 여러



한해에 수십만부씩 팔려나가는 '뵤키 뵤크'.



화가들의 전기를 다루고 있는 '의사만화'.

가지 어려움으로 상당수가 폐간되었기 때문이다.

속간되고 있는 성인용의 경우에도 단 2종의 잡지만이 월평균 약 십만부를 판매하면서 채산을 맞추고 있을 뿐, 대부분 다른 잡지들은 다양한 잡지를 판매하는 출판사의 간행물들을 소개하는 일종의 캐탈로그로서 기능하고 있다.

#### 청소년용 만화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

다양한 관찰을 종합해 볼 때, 그 주어진 자료들은 매우 최근의 것들이며 또 철저한 것들이 아니긴 하지만, 일련의 통계치를 구성하거나 의미심장한 경향을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 또 몇가지 사실에 대한 확인,

혹은 가정도 가능하다.

연간, 약 3억5천만 프랑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만화는, 그 시장규모를 볼 때 1985년 이후로 프랑스 전체 출판의 2.8% 내지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규모(출판계 내에서의 비중)는 1989년 이후로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3.32%에서 2.84%로, 총 매출 규모로 환산해 볼 때 15%의 감소를 보였다). 이런 지표는 만화가 출판계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더구나 198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만화출판의 절대 매출액이 1% 감소했다. 프랑스의 환율 상승율이 1.5%이고,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감소는 5%

에 달하는 셈이 된다. 반면에 프랑스 전체 출판은 같은해 9%에 달하는 총매출액 신장을 보였다. (5%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도)

그러나 모든 분야의 만화상품이 동일한 변화를 보인 것은 아니다. 성인만화는,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35%의 매출신장을 보였으나 청소년용 만화는 같은 기간에 사실상 약 13%의 감소를 나타냈다. 청소년 만화에 사실상 위기가 닥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의 하나로 도서정가제의 법률적 제한 밖에 있는 벨기에 만화의 침투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뒤퐁, 노베디, 롱바르 등 벨기에 저작권과 연계된 출판사들은 청소년 만화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987년 이후로 총발행부수의 감소가 지속되었고, 이런 경향은 청소년물 뿐만이 아니라 성인용 단행본, 신간은 물론, 재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각각의 항목별로 이런 감소는 대략 20%에 달하고 있다(청소년물이 이보다 더 큰 감소율이며, 성인물의 경우 다소 소폭이다). 개별적 종별 평균 발행부수 또한 1987년 이후로는 대체로 20%쯤 감소했다. 성인만화의 경우, 1989년에 처음으로 近作小説보다 적은 발행부수를 기록했다(1,500부 이하).

만화의 평균 발행부수는, 청소년물과 마찬가지로 성인물에서도, 어쨌든 출판계의 가장 상위권을 차지해왔다. 이것보다 더 많은 부수를 판매는 것들로 오직, 사전류와, 백과전서류, 그리고 소설만이 있을 뿐이다. 청소년만화의 경우는 청소년 출판물의 범주에 속하므로 그 평균발행부수는 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연간 판매부수를 고려할 때, 발간부수만큼 부정적인 추세만은 아니다. 1989년에 성인만화의 판매는 청소년만화판매의 감소를 보상할 만큼이나 증가했다. 대체로 프랑스에서 매년 판매되는 단행본 만화의 평균부수는 약 1만5천으로 출판계 전체 생산량의 5%에서 크게는 25%에 이른다.

그러나 시장에 관한 관찰은, 각 만화의 저자 및 그 제목에 따라 크게 영향받아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같은 해 에라도 어떤 만화가 시장에 등장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뵤키 뵤크, 아스테릭스, 그리고 레 슈트룸프 같은 만화들은 수십만부씩 판매되어 나간다)

1985년 이후 종별 발행부수, 연간 발행 중수의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1985년에는

687종이, 그리고 1990년에는 767종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반면에, 최근 3년간 단행본들은 꾸준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연간 550종), 이것은 생산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또 이런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신작의 경우는 안정된 생산을 보이는 반면 재판본이나 의사만화 분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런 기복이 심한 양상은 일시적 상황에 좌우되기도 하고(특히 일련의 시리즈로 재판집되어 발간되는 전집류들에서), 또 실질적인 편집정책에 의해 변화되기도 한다.

#### 벨기에의 프랑스어판 만화유통량 상당해

프랑스에서의 만화소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하려면, 프랑스 만화만 아니라 프랑스어판 벨기에 만화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벨기에 만화는 프랑스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프랑스어판 벨기에 만화의 약 75%가 프랑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가령 프랑스어판 벨기에 만화생산의 전체 수치를 프랑스어판 만화 전체의 매출규모에 포함시킨다면, 그 규모는 1987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나타낸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1989년에는 6억 프랑이 될 터이다. 그보다 두 해전에는 5억2천5백만 프랑이었다.

프랑스 시장에서 벨기에 만화의 생산량의 75%가 유통된다고 할 때, 프랑스의 생산은 다소 지둔해진 것이긴 하지만 만화의 소비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소비가 벨기에에서 발행된 단행본으로 자리를 바꾸기만 한 셈이다. 벨기에 단행본 만화의 경쟁력은 도서정가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강화되고 또 이렇게 해서 판매상들은 원가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만화를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대형 슈퍼마켓에서 종종 채택하고 있는데 1988년의 경우 그들은, 소매서점이 만화공급량의 25%를 확보한 반면, 20%의 공급량을 확보했다).

<이 글의 필자 에릭 비데씨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기술협력과 도서담당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문화경제학 전공 박사과정중이다. 번역 미술평론가 정진국씨. - 편집자 주>